

제21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국가유공자 등 8명 수상

전남보훈회관에서 성황리 개최
수상자 및 내빈 등 60명 참석
“보훈문화 확산 더욱 힘쓸 것”

전남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전남서부보훈지청·전라남도·담양군이 후원하는 제21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이 19일 오전 전라남도 목포시 전남보훈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전남보훈대상은 올해 21회째로 그동안 11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김남용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정영숙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김수경 전남도청 보건복지국보훈선양팀, 송인정 광복회 지부장, 김국년 상이군경회 지부장 등 내빈 60여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수상자발표 △시상 △인사말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남보훈대상은 △상이군경 △중상이자 배우자 △미망인 △유족 △특별부문(독립유공자 유족,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유족) 등 5개 부문으로 정재욱(상이군경), 김축여(중상이자 배우자), 오야모(미망인), 박진규(유족), 윤미해(독립유공자), 강이원(6·25참전유공자), 김해룡



제21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이 19일 전남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열려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정재욱(상이군경 부문), 김축여(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오야모(미망인 부문), 박진규(유족 부문), 윤미해(특별(광복회) 부문), 강이원(특별(6·25참전 유공자) 부문), 김해룡(특별(고엽제전우회)부문), 정석봉(특별(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문) 수상자와 김남용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정영숙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김국년 상이군경회 지부장, 김인순 미망인회 사무국장, 전종국 전물군경 유족회지부장, 송인정 광복회 지부장, 김춘일 6·25참전 유공자회 지부장, 전정남 무공수훈자회 지부장, 양관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전남도지부장,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

김양배 기자

(월남참전유공자), 정석봉(5·18민주유공자)씨가 수상했다.

8명의 수상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보훈 가족 및 보훈단체 등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유족 부문 수상자인 박진규(75)씨는 “보훈의 달을 맞아 전남보훈대상을 받을 기회를 얻어 감사한 마음이다. 보훈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특별(독립유공자 유족) 부문 수상자 윤미해(64)씨도 “부족한 제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며 “태극기 나눔 행사 등 보훈 선양 사업을 통해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겠

광주·전남 21일까지 비… 최대 120mm

이번 주말 광주·전남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최저기온은 21~23도, 최고기온은 25도~28도로 전망된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30~80mm의 비가 예보됐으며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토요일 21일은 최저기온은 21~23도, 최고기온은 25~28도가 예보됐다. 이날 역시 30~80mm의 비가 예보됐으며 이날 오전부터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비

가, 전남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내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22일 일요일 역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최저기온은 17~21도, 최고기온은 25~29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으며 이날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릴 수 있으니 하천변 및 지하차도 접근과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에도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마사지 가게 침입해 현금 훔친 30대 구속

광주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현금과 하드디스크를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은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25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 마사지 가게에 침입해 현금 90만 원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가게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정준 기자

광양서 경운기에 깔린 70대 숨져

전라남도 광양에서 경운기 사고로 70대 남성이 숨졌다.

19일 광양소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6분께 전남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한 주택 마당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마세라티 뺑소니’ 500명 추가 입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광주경찰이 지난해 9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것과 관련해 도박 이용자와 대포통장 유통자 등을 추가 입건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지역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먼저 지난해 지역민들을 분노케 했던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에 대해 후속 수사를 통해 총 50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마세라티 뺑소니는 광주 도심에서 수입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사건으로 가해자 김씨(당시 33세)는 당시 오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후 곧바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으로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지만, 경찰 조사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가 나와 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수사 결과, 주범인 김씨를 포함한 9명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특히 김씨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도박 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뒷선이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해당 도박사이트에 참여한 이용자 440여명도 도박 혐의로 입건돼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또 도박 자금을 유통하거나 세탁하는데 사용된 대포통장 및 차명계좌를 제공한 유통책 60여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현재 후속 수사로 입건된 인원만 총 5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건인 만큼

경찰은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청장은 이어 최근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광주지역에서는 올해 4월까지 유통업체를 사칭해 배송비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총 129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총 20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을 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청장은 “피싱 범죄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법 차단을 위한 새로운 예방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금호타이어 화재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에 대한 합동감식을 한 달 내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도박자금 마련 차탈이 10대 구속 “도박 사이트 철저한 단속 필요”

광주 지역 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 호남지역 청소년의 6.4%가 평생 한 번 이상은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국 평균 4.3%보다 2.1% 높아 전국 5개 권역 중 가장 높다. 학급당 학생 20명 중 1명 꼴이다.

도박의 문제점은 그 자체로도 중독의 위험을 지니고 있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손쉽게 빠져든다는 점이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6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훔친 현금 전부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 마련과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운영 업체들을 차단하는 등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승우 기자